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Trade Brief

2013.7.11. No.15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801호
Tel:02)6000-5159 Fax:02)6000-6190 홈페이지:http://iit.kita.net

美제조업, "자국 생산" 자신감 회복 등으로 부활의 날갯짓

최근 미국 제조업 부활은 "자국 생산"에 대한 자신감 회복과 정부의 이노베이션을 통한 선진제조업 육성책, 미국 소비 회복 등이 작용한 것임. 한국은 ICT를 활용한 제조업 선진화를 위해 국내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와 FTA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에 나서야 함

1 美제조업 성장엔진의 재점화

□ 최근 미국에서는 제조업 비중 상승, 제조업 고용자수 증가, 해외진출 기업의 U턴 등으로 제조업 부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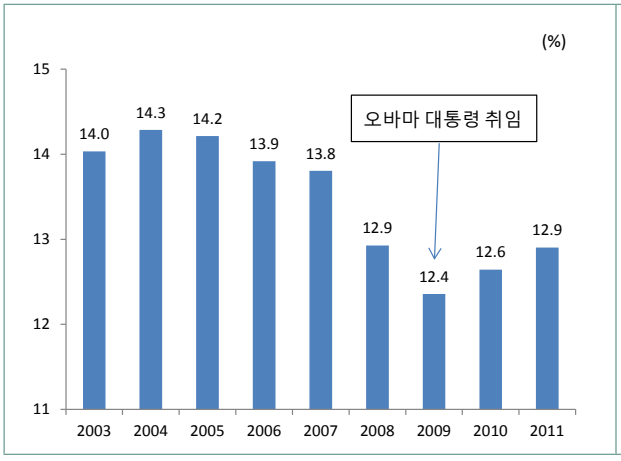
○ 미국 국내총생산(GDP)내 제조업 비중이 2009년을 기점으로 반등

○ 미국 제조업 고용자수가 최근 3년간 53만명 증가

– 2010년 2월 1,146만명 → 2013년 2월 1,199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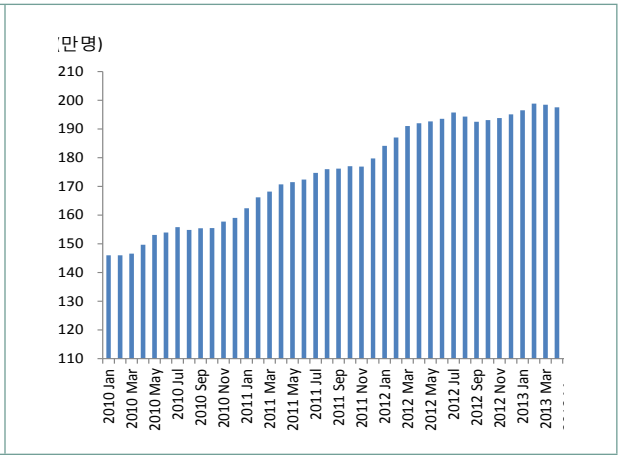
○ GE, 월풀, 포드 등 미국 대기업들이 멕시코, 중국, 인니 등의 생산 공장을 철수 또는 생산 비중을 축소하는 반면, 미국내에서 신규 공장을 건설 또는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사례가 늘어남

미국 GDP에서 제조업 비중



자료 : World Bank

미국 제조업 고용자수



자료 : 美 Bureau of Labour Statistics

2 美제조업 부활의 숨은 공신 …

□ 미국 제조업 부활은 경기회복의 순풍을 타고 “자국 생산”에 대한 자신감 회복, 정부의 이노베이션을 통한 선진제조업(advanced manufacturing) 육성책, 미국 소비 회복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



(1) “자국 생산”에 대한 자신감 회복

○ 중국의 가파른 임금 상승, 셰일가스 개발, 물류비, 해외생산의 숨은 비용 등 총 생산비를 고려하면, 업종 전망 및 특성에 따라서는 오히려 해외생산보다 미국 생산이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

– (미중간 인건비 격차 축소) BCG 전망에 따르면 2015년까지 중국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이 연평균 17%씩 상승. 2000년도에는 기업들이 중국 생산이전으로 노동비용을 65% 절감할 수 있었으나, 2015년에는 39% 절감에 그칠 것으로 추정[1)]

– (셰일가스 개발로 에너지비용 절감) 셰일가스 개발로 천연가스 가격과 에탄 등 석유화학원료의 가격이 하락, 산업용 전력요금이 안정되고, 석유화학 등 다양한 업종에서 생산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

1) BCG, “Made in America, Again: Why Manufacturing Will Return to the U.S.”, 2011.8.

– (유가 상승에 따른 수송비 증가) 수송기계, 건설기계 등의 경우 해외생산거점에서 미국내 수요지까지의 수송비 부담이 증가

– (숨은 비용 "Hidden Cost" 재평가) 신흥국으로의 생산이전에 따른 기술유출, 지적재산권침해 리스크, 품질저하, 물류 관리 등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적지 않음

* 중국 생산의 경우 모방품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은 매월 50만 달러의 비용을 부담함[2)]

– (자금조달 용이)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미국 기업들의 자금조달 환경은 양호한 반면, 중국은 금융 규제강화 등으로 자본시장 불안정성이 고조

(2) 이노베이션을 통한 선진 제조업(advanced manufacturing) 육성[3)]

○ 선진제조업이란 ① 정보, 자동화, 컴퓨터, 소프트웨어, 센서, 네트워크 구축 등을 활용, ② 물리 · 생물과학(나노, 화학, 바이오)에서 창출된 최첨단 소재 등을 활용하는 업종으로, 신제품과 신제조공정의 포괄 개념임

○ 선진제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는 특정 기업 ·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신기술과 새로운 시도 자체를 지원하는 이노베이션 정책을 일관되고 추진해야 함

* 특히 3D 프린터 기술[4)]과 같이 제조 공정에서의 이노베이션 창출을 적극 지원함. 3D 프린터 기술이 보급되면 개발 · 제조기간 단축, 생산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컴퓨터에서 설계한 3차원데이터로 시제품이나 모형을 제조할 수 있으므로 항공기와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의 미국내 부품 조달에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제조업을 고용 및 투자의 근원으로 인식, 해외사업 수익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U턴(리쇼어링) 촉진, 해외 이전(오프쇼어링) 억제를 도모, 미국내 고용 및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

2) 일본 통상홍보 2013/6/12일자
3) 미국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선진제조업에서 미국 주도권 회복」(PCAST2011) 보고서에서 제언
4) 플라스틱 액체나 파우더 같은 원료를 사출해 3차원의 입체 물질을 다양하게 찍어낼 수 있는 프린터 기술임. 올해 초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3D프린팅 기술을 가리켜 '미국 제조업을 다시 일으킬 혁신기술'로 조명했음.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지원책 개요

산 · 관 · 학 연대 연구개발 네트워크 창설	
	15대 제조업 이노베이션 연구 및 교육거점 네트워크 구축
	노동부 · 교육부가 운영하는 산학연대 직업훈련기금 창설
경쟁력향상을 위한 세제 개혁	
	법인세율 인하 (제조업 실효세율 : 25%)
	연구개발세액공제 확대
	해외사업이익에 대해 최저과세(오프쇼어링세) 도입
고용의 국내회귀 촉진	
	공장 폐쇄지역에의 투자유치 지원
	미국으로의 투자유치 프로그램 (SelectUSA) 예산 확충
공평한 경쟁조건 확보와 미국제품의 시장확대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TPP) 교섭체결
	EU와의 환대서양무역 · 투자협정(TTIP) 교섭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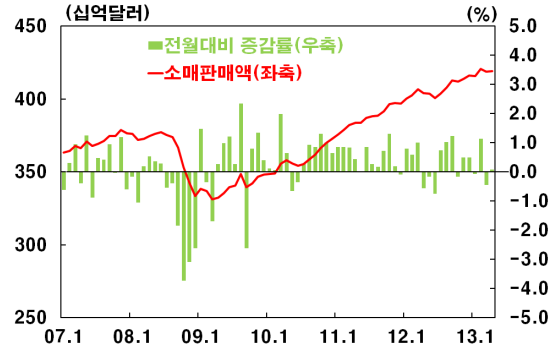
자료 : The White House, "Fact Sheet : The Presidents Plan to Make America a Magnet for Jobs by Investing in Manufacturing". 日미즈호총연, "미국 산업구조 변화 · 거시경제통계로 본 「제조업부활」의 실태"(2013년 2호) 재인용

(3) 미국 소비 회복과 「地産地消」 소비 트랜드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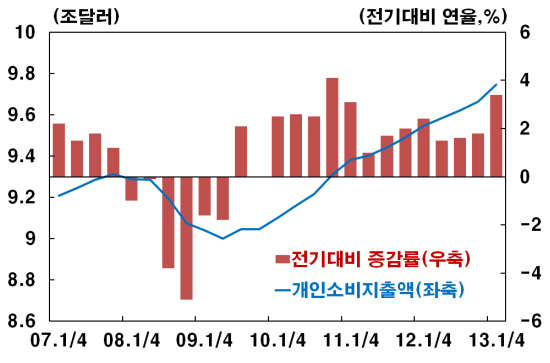
○ 중국 등 신흥지역 생산 제품은 신흥국내에서 소비하는 「地産地消」처럼 미국인들의 소비 욕구에 맞는 제품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인식이 형성

– (미국 소비 회복) 미국 소매판매와 소비지출이 2010년 이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1/4분기 소비지출은 2.6%(전기대비 연율) 증가

미국 소매판매



미국 소비지출



자료 : 미 상무성,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미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에 대한 평가"(13/06/27) 재인용

– (미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 미국 소비자들은 중국산 위해식품 파동 등의 영향으로 자국산 제품이 신흥국 생산제품보다 우수하다고 인식, 같은 제품일 경우 “Made in U.S.”를 구매하는 성향이 있음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미국은 출구전략을 검토할 만큼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어 향후 미국내 제조업 생산 및 고용, 기업의 U턴 사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오바마 정부의 U턴 인센티브 외에 셰일가스 개발로 인한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도 향후 기업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다만, 중국 등 아시아 소비시장의 성장세 지속과 한·중·일간 부품소재 조달 체계 등을 고려할 때 미국 기업들의 U턴이 대세가 되기보다는 미국 기업들의 생산비 절감만을 위한 무분별한 해외이전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한국 기업들의 국내 U턴 확대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지원도 중요하지만, 미국 사례처럼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다 큰 그림의 접근이 필요함

○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ICT를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진행, 고효율 에너지원 대체, 노동생산성 향상 등으로 한국내 생산의 이점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 미국 소비시장 회복이 해외진출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요인인 만큼 한국에서 생산하면 FTA를 통해 거대 소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점을 투자유치의 세일즈 포인트로 활용해야 할 것임

□ 한국 기업은 최근의 미국 경기 회복을 비즈니스 기회로 적극 활용, 미국 기업들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미국 소비시장에 대한 분석 등 전략 구상이 필요함

○ 한편 중국 임금 상승 등 신흥국 생산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과 글로벌 기업들의 대응책 등에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임

문의 국제무역연구원 기업경쟁력실 박기임 수석연구원 (6000-5177, giimpark@kita.net)

국제무역연구원 소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007년 3월 12일 무역연구소를 확대 개편하여 국제무역연구원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며 한국무역의 미래전략 제시, 심층적인 무역연구, 각종 정보제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은 무역이 국가경쟁력의 표상인 점을 감안하여 무역진흥의 목표 하에 무역정책 및 전략 개발, 수출입 동향 분석 및 전망, 해외시장 정보제공, 다자간 협상동향 및 FTA 추진전략 개발,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 BRICs 및 신흥시장 진출 전략 연구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향분석실, 기업경쟁력실, 통상연구실, 미래무역연구실, 전략시장연구팀 등 4실 1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무역연구원은 각종 연구보고서와 다양한 무역자료를 웹사이트(http://iit.kita.net)를 통해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향분석실

- 수출입, 환율 및 원자재 동향 분석 및 전망
- 수출경쟁력 연구,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 무역의 구조변화 전망 및 정책제안
- 무역자료실 운영
- 무역연감, International TRADE 발간

기업경쟁력실

- 인력교육 및 공급체계, 기업환경 개선 연구
- 무역지원제도의 평가 및 대안제시
- 신성장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연구
- 중소기업 무역정책방향 연구

통상연구실

- 우리나라 FTA 추진전략 및 FTA 효과 실증 연구
- DDA, 보호무역주의 등 주요 통상 현안 연구
- 아시아 경제통합 대비 통상전략 수립
- 주요국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 FTA를 활용한 유망 신흥시장(중남미, 아세안 등) 진출전략 연구

미래무역연구실

- 한국 무역의 확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과제 발굴 및 연구
- 한국 무역의 소프트파워 강화 방안 연구
- 서비스 산업의 수출산업화 연구
- 차세대 수출모델 연구

전략시장연구팀

- BRICs 진출전략의 체계적 수립
- 전략시장 마케팅정보 제공을 통한 진출기회 확대 연구
- BRICs INSIDE 발간
- BRICs 및 신흥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